

영생의 물질 내뿜으면 온 천하 만물이 다 영생돼

나라는 주체의식의 정체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신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만물이 신이면 지배하는 신이 있고 지배를 받는 신이 있는 거죠? 태초에 지배하는 신은 하나님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정령하면서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린 고로 이 세상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신이 사람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인 것이올시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지배하는 신이 마귀 신인고로 성경과 불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리라고 하였지만 나를 왜 항상 버리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을 지배하는 신이 마귀의 신인고로 성경과 불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마귀의 집을 빼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나와야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요, 죄의 본질이요, 선악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주체의식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는 주체의식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 멍청구릴까? 멍청구리죠?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고로 그 사실을 알면서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생각이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면서 마귀 새끼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로 마귀 새끼의 탈을 벗으려면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려야 하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려면 초초로 나라는 의식의 생각에 반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올시다. 반대로 움직이면 마귀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로 마귀를 공격하면서 생활을 해야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실패를 해서 넘어지고 종내는 죽어버리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 지는 거죠?

강자가 되어야 영생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되고 또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면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고로 무적 장수가 되는 거죠? 무적 장수가 되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지배자가 이 세상을 우지좌지하고, 지배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로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은 지배자의 세상이죠? 그리고로 강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야, 약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야? 강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강해져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나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로 강자가 되어야만 지배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의 천리가 되는 이치인 것이올시다. 강자가 지배를 하고 약자는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왜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나면 모든 인간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인간들을 지배



구세주 조희성님

하고 있으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고로 이 세상을 마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반대 생활을 해야

마귀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구세주 이긴자가 틀림없는 것은 뉘나면 나를 버리는 비결, 나를 죽이는 비결을 세밀하고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리고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대 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반대생활을 해라. 일 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해라. 전도 하기 싫으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라. 제단 나오기 싫으면 열심히 제단 더 일찍 나오고 이제 그대로 절하기 싫으면 열

심히 절을 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사랑을 베풀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와 같은 반대 생활을 해야 마귀를 죽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긴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하는 말씀에서 철장은 바로 마귀의 마음을 죽이는 진리의 말씀이 철장이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것이 마귀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해골통을 철장으로 까서 부수는 거야, 안 부수는 거야? 까서 부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들은 "나를 버려라." "나를 이겨야 천하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를 왜 이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은 주체의식이 마귀 영이었던 고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감추었던 만나가 내리고 있느냐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이긴자한테 준다고 약속이 되어, 안 돼 있어? 약속이 되었죠? 또 이슬을 내리는 이긴자가 구세주라고 성령 호세아서 14장 5절에 쓰여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로 이제 제단 나오는 그 날부터 자신과 더불어 투쟁을 해서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점점 점점 영생의 길을 가는 거지 자신과 더불어 투쟁을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늘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해서 지는 생활, 종 살이를 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영생의 핵심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는 생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올시다. 마귀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하나님이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논했던 거죠? 그리고로 하나님의 성품은 영생의 성품이요 죽음을 모르는 성품인고로 영생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인고로 영생의 핵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슬 내리는 걸 보여주고 또한 피가 변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자신들 속에서 체험으로 와, 안 와? 이제 제단 나오면서부터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질 않죠? 화가 날 일인데 화가 나

지 않는 그 이유는 이제 화가 나는 그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인고로 마귀를 죽여 버렸는데 어떻게 화가 나. 그래, 안 그래? 그리고로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은혜를 받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은혜 받은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쏟아져, 안 쏟아져?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로 그 사람은 죽을죄를 진 거야, 살죄를 진 거야? 죽을죄를 진 거야, 아시겠어요? 화를 내도 은혜가 쏟아지고, 마음으로 음란죄를 저도 은혜가 쏟아져, 안 쏟아져? 쏟아지죠?

그러므로 1초 1초도 결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가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마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시간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어서 마귀의 영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간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마귀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고 다섯 번 이기면 점점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 약해져? 점점 강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무적 장수가 돼버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적 장수가 다 돼가지고 온 인류가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코로 내뿜는 공기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영생의 물질을 내뿜으면 바로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영생이요, 죽어요? 영생이죠?*

1993년 11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4장 요셉》



(9)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다

(9)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열두 아들을 불러 그들이 당할 장래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르우벤아, 너는 위광이 조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나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나의 소실(小室) 발하를 범하려고 하였도다. 발하는 겁탈하려고 하는 너를 물리치고 정조를 지켰으며 너로 인한 수치로 은장도로 자결하려 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살았도다. 너는 비록 나의 맏아들이지만 장자상속을 받을 수 없느니라."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나의 첩례야가 낳은 자요, 그들은 형제라. 그들의 같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세계 성읍의 통치자 세계의 나의 딸 다나와 통간한 것은 가나안의 풍습에 따른 것이건만,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까지 행한 세계의 사람들을 그 분노대로 죽이고 그 할례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리다."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 중 단 자손에서 배출된 실로

(Shilo: 의로운 메시아)를 찬송하게 될찌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앞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리다. 흠(贖)이 유다와 함께 하여 너의 후손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나와서 2천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실로(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마치리다. 붉은 포도즙으로 염색한 흉포를 두른 자가 흠이 함께 하여 이 세상을 붉게 물들여 그에게 모든 백성을 복종시키겠지만, 단 자손에서 나온 실로가 붉은 십자가를 제하고 이 세상을 우유 빛과 같이 거룩하게 정화하리리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아들 스블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리다. 스블론에서 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또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의 형제를 먼저 위하는지라, 주의 축복을 받아 그들의 산업이 번창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대장군의 지팡이(서기관이 잡은 붓)를 잡은 자가 나오리다." "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아들 잇사갈은 양 옆구리에 붓집을 잔뜩 실은 채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와 같도다. 그는 쉴 곳

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그 위에 짐을 메고 앉게 아래서 섬기리리다. 너의 강인함과 매사에 만족함에서 시세를 잘 분간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며, 너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현자들이 나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리라." "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이니라. 비록 그가 라헬의 몸통 밑에서서 낳지만 발하를 유모라고 부르고 라헬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라헬의 품에서 자랐으며, 그의 생모 발하는 단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주인의 아들로 여기는 순종의 덕을 쌓았노라. 여주인 라헬은 이스라엘의 본처요, 라헬의 첫째 아들들은 단이니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리다. 단은 길의 뱀이요 절경의 독사(히브리어로 '쉐피폰'이라고 함)로다." 말씀에 물어 그 1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열두 아들의 장래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의 본처 라헬의 품에서 자란 장자 '단'에 대한 축복은 창세기 49장 16절,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단'이 길의 뱀이라고 하여, 마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뱀은 마귀로만 상징하지 않고, '지혜는 뱀같이 하라'고 좋게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본 자가 산 것은 구원과 구원자로 상징한 좋은 예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인 고로 한국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파이고 단지파가 한국 백성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절경의 독사'의 독사(毒蛇)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사(毒蛇)의 독(毒)자는 임금 주(主)자 밑에 어미(母)자입니다. 임금은 임금인데 어미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뱀 사(蛇)자는 벌레 총(虫)자 옆에 의자(宅)를 그려놓은 것인데, 벌레 총(虫)자는 사각(卍)에 일(一)을 내리 그은 것인데, 네 생물이 이겨서 왕(-)의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왕이나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은 고로 옆에 의자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독사라는 말이 어미 임금인데 네 생물이 이겨 왕의 사람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사는 뱀인데 말(馬)과 비교하면 말이 독사보다 수백 배나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리다'고 한 말씀을 풀이해보면, 옛날에 지체 높은 왕들이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왕권을 빼앗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8절의 예언을 보아도 '여호와와 구원을 기다리는 민족의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즉 단지파 가운데

말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번째 아들 갖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리다. 여덟 번째 아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리다.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야,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와 복이 가득하며, 너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작게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는 곧 이스라엘 장자 단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야곱의 하나님 단에게 옮겨져 단은 야곱의 전능자요, 단의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야곱이 그의 12아들의 장래일을 예언하다

복이리리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리다." "이스라엘 열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리다.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리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에게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리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안젤라